

# KERI Brief

## 한국 무역의 부가가치창출 현실과 시사점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nchoi@keri.org)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가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전통적인 수출입 산정 방식으로 수출과 수입을 측정할 경우 수출의 중요성은 지나치게 과장되고 수입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가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한국의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무역수지 현실을 파악하고 한국 수출구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OECD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어느 나라의 어떤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는가를 기준으로 무역통계를 작성하였다. OECD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수지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2009년 우리나라의 대중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약 80% 감소하고, 대일무역수지는 균형수준에 근접하였으며, 대미무역수지 흑자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의 글로벌 수입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신

흥국 수출의 경우 국내창출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 안에서 부가가치 창출과정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경 간 거래효율성을 제고하고, 중간재수입을 위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며, 물류체계정교화 및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특히, 시진핑 시대 중국의 최종재 소비증가에 대비하여 정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국내창출 부가가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의 대중 비즈니스 기능을 확충하고 대중 수출구조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한편, FTA 체결 등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전통적인 수출입자료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기준 수출입 자료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 1. 문제제기

□ 우리나라의 수출입은 국경을 넘어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총량을 기준으로 측정

- 전통적 무역통계량 산정방식에서는 양자 간 교역에서 수출규모가 중복계산 되면서 수출의 중요성이 과장될 수 있음

○ 최종재 수출과 가공무역을 위한 중간재 수출을 최종 소비국가에 대한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대상국가에 대한 수출로 산정

- 반면에 국내총생산 회계방식에서 수입은 마이너스로 산정되어서 수입의 수출기여도는 상대적으로 간과

○ 국내최종수요를 위한 수입과 수출용 중간재수입을 수출기여도에 따라 각각 차별하지 않고 모두 동일국가로부터의 수입으로 산정

□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흐름 및 무역패턴의 변화양상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교역의 상호의존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최종수요국가에 대한 수출과정이 여러 국가와 산업에 걸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전통적인 양자 간 수출입자료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 안에서 부가가치 기준 수출입자료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한국 무역의 실태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부가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한국의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무역수지 현실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국내창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측정된 한국 무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을 명확히 파악하여 한국 수출구조에 대한 시사점 제시

## 2. 한국 무역의 부가가치 창출 규모 분석

□ 수출입 총량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와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 대일 무역수지 적자 패턴 유지

-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2001년 이후 거의 지속적으로 증가

○ 2001년 대중무역수지 흑자 46억 달러에서 2011년 무역수지 흑자규모 572억 달러로 증가

○ 대중무역수지 흑자규모의 약 90%이상은 상품수지 흑자 때문

-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만성적자. 상품수지 적자에 기인

- 대미 무역은 상품수지는 흑자인 반면에 서비스수지는 만성적자

□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장되면서 전통적인 수출입 산정방식으로 수출과 수입을 측정할 경우 부가가치 창출이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졌는지 구별하기 어려움

[표 1] 한국의 국가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항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국	상품수지	4,838	6,990	14,008	21,128	25,305	23,653	23,100	19,170	36,972	51,285	55,119
	서비스수지	-277	-882	9	205	-485	-654	175	2,581	1,107	3,099	2,076
	무역수지 <sup>1)</sup>	4,560	6,108	14,017	21,334	24,820	22,999	23,275	21,751	38,079	54,384	57,195
일본	상품수지	-9,053	-13,812	-17,915	-22,974	-21,957	-23,365	-24,241	-24,796	-24,914	-33,737	-26,567
	서비스수지	1,872	594	211	307	-736	-1,871	-3,173	-200	975	1,762	1,020
	무역수지	-7,180	-13,218	-17,704	-22,667	-22,693	-25,235	-27,413	-24,996	-23,938	-31,975	-25,547
미국	상품수지	10,046	10,564	10,223	15,093	12,313	10,765	9,252	8,899	10,419	12,469	15,134
	서비스수지	-2,494	-3,393	-3,362	-2,819	-4,596	-7,117	-6,287	-8,840	-9,493	-12,112	-10,973
	무역수지	7,552	7,170	6,861	12,274	7,717	3,648	2,965	58	925	357	4,162

주: 1) 무역수지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합으로 산정함  
 자료: 한국은행

- 최종재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을 통해 전 세계의 여러산업에 걸쳐서 세분화되어 생산되므로 단순히 국경 간 거래를 가지고 수출입을 산정할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어디에서 창출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

○ 가령, 해외중간재 수입은 국내최종수요를 위한 중간재로 사용되거나 또는 해외수출을 위한 투입요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산정방식에서는 동일하게 해외창출 부가가치에 대한 국내 수입으로 간주

- 수출의 글로벌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생산과정을 명확히 파악하여 수출용 중간재수입이 국내창출부가가치 수출에 기여하는 바를 구분해야 함

□ 부가가치 수출의 최종중착국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이며 어떤 나라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출되는가에 따라 부가가치 수출규모를 산정해야 함

- 글로벌 가치사슬을 파악하여 어느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 이익은 어느 나라에 귀속되느냐를 분석하기 위해 최종수요국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의 국가 간 수출입을 측정

○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할 때 수입은 국내최종수요 목적으로 수입한 상품·서비스 중에서 해외창출 부가가치만 해당

○ 수출의 경우 해외최종수요에 대해 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만 부가가치 수출에 해당

○ 수입중간재를 가공하여 최종재를 수출할 경우에는 해외창출 부가가치는 제외하고 국내창출 부가가치만 부가가치 수출로 간주

○ 이때 수출용 중간재 수입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수입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수입한 국가의 최종수요국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에 해당

□ OECD에서 최근 발표한 부가가치 기준 수출입 자료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어느 나라의 어떤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수출입 규모를 측정하였음

- OECD와 WTO의 공동사업으로 34개 OECD 회원 국가와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6개 신흥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간 산업연관표를 연결하여 18개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파악

○ OECD는 Trade in Value Added (Tiva) 자료를 2013년 1월 발간

- 원자재 생산에서부터 최종재를 완성하는 글로벌 생산과정상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과 국가를 분석하여 최종수요국을 기준으로 양자 간 교역에서의 부가가치 수출입규모를 산정

□ 국내창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은 대폭 감소하고 대미수출과 대일수출은 상대적으로 증가

- 2009년 기준 중국은 한국 총수출(상품·서비스)의 27%를 차지하였으나 국내창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대중수출을 재산정할 경우 비중은 18.7%로 감소. 한편 우리나라의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은 13.8%와 9.2% 수준으로 증가

○ 한국의 국가별 수출비중(2009년, %): 대중수출 감소(27% → 18.7%)

○ 대미수출 증가(13% → 13.8%)

○ 대일수출 증가(6.5% → 9.2%)

- 이는 우리나라 수출의 글로벌 수입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

○ OECD-WTO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출에 사용되는 해외수입 중간재의 비중은 수출의 대략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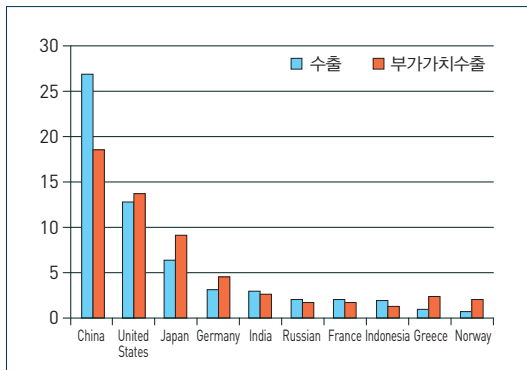
- 수입의 경우 대중수입과 대일수입은 증가한 반면 대미수입은 감소

○ 국가별 수입비중(2009년, %): 대중수입 증가(16% → 16.6%), 대미수입 감소(12% → 10.8%), 대일수입 증가(8% →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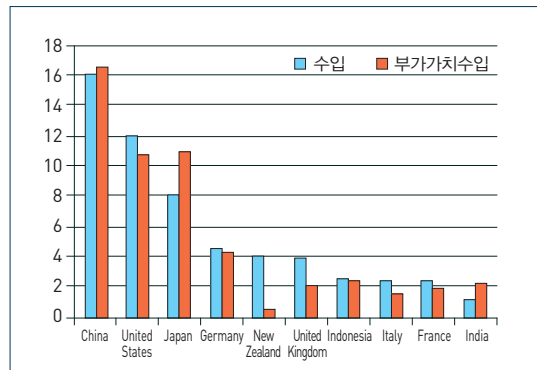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 OECD 주요 교역국별 부가가치 수출입 비중 (2009년)

(단위: %)

[수출]



[수입]



자료: OECD-WTO

## 한국 무역의 부가가치창출 현실과 시사점

□ 그 결과 무역수지를 부가가치로 측정할 경우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흑자 규모는 약 80% 줄어들고, 대일 무역수지는 균형수준에 근접, 그리고 대미 무역수지흑자폭은 증가

- 대중국 무역수지흑자 약 464.5억 달러 감소하고 이는 총량기준 약 81.7% 감소: 568.7억 달러(총량기준) → 104.1억 달러(부가가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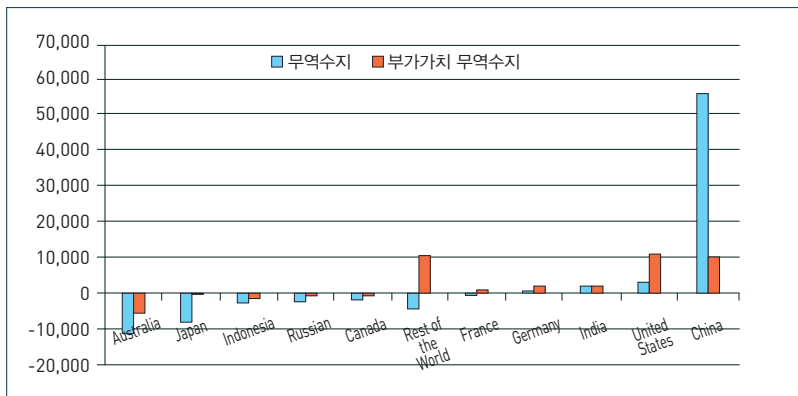
- 대일 무역수지적자는 82억 달러 감소하여 3.6억 달러로 균형수준: -85.6억 달러(총량기준) → -3.6억 달러(부가가치 기준)

- 대미 무역수지흑자 78.6억 달러 증가: 30.7억 달러(총량기준) → 109.3억 달러(부가가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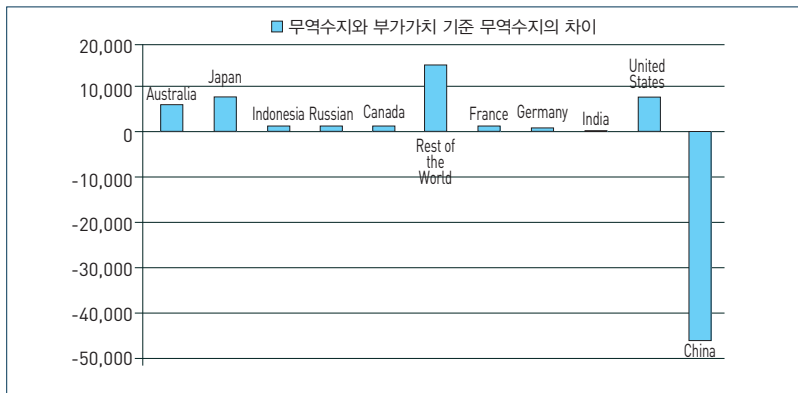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의 OECD 주요 교역국별 부가가치 무역수지 (2009년)

(단위: 백만 달러)

### [무역수지]



###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무역수지와 차이]



자료: OECD-WTO

□ 이는 부가가치 창출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대중 수출에서 국내창출 부가가치는 줄어들고, 중간재수입 중에서 중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늘어나기 때문임

- 대중 최종재수출을 위해 사용한 해외수입 중간재의 몫을 제외하면 국내창출 부가가치 수출은 줄어들게 됨

○ 또한 대중국 가공무역의 경우 국내창출 부가가치 수출은 선진국에서 수요하므로 대중수출은 감소하고 선진국수출은 증가함

- 가령, 한국에서 중국으로 스마트TV를 수출할 경우 해외수입중간재를 44% 사용해 제작했다면 국내창출 부가가치 수출은 56%로 줄어들게 됨

○ 또한 중국으로 55%정도 완성된 자동차 엔진부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한 후 완성된 자동차 엔진을 미국으로 재수출할 경우, 국내창출 부가가치 수출 55%는 대중국 수출이 아니라 대미 수출로 기록됨. 따라서 대중국 수출은 줄어들고 대미 부가가치 수출은 증가

- 대중 수입의 경우, 국내 최종수요를 위한 수입 중에서 중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따라서 중국창출 부가가치 수입비중 증가

○ 가령, 국내최종수요를 위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일반 기계의 약 60%가 중국산 중간재를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 기준 대일수입은 40%만 해당되므로 전통적인 산정방식과 비교할 경우 대일수입은 60% 감소하고 그 대신 대중 부가가치 수입이 60% 증가한 것임

[표 2] 단순사례: 한·중·일 교역의 부가가치창출 현실과 무역수지 통계의 차별성

	한국이 일본서 중간재 수입 후 중국에 최종재를 수출할 경우
(1)	일본서 부품수입 80억 달러 (일본은 72억 달러 중간재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부가가치 8억 달러 창출한 뒤 한국에 80억 달러에 수출)
(2)	한국은 80억 달러 부품을 가지고 부가가치 20억 달러를 창출해서 100억 달러에 최종재로 중국으로 수출
(3)	전통적인 산정방식: 대중 무역수지 = 100억 - 0 = 100억 달러 대일 무역수지 = - 80억 달러 한국의 총무역수지 = 20억 달러
(4)	부가가치 기준방식: 대중 무역수지 = (100억 - 8억 - 72억) - 0 = 20억 달러) 대일 무역수지 = 0억 달러 한국의 총무역수지 = 20억 달러
(3) 과 (4) 비교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대중 무역수지흑자는 80% 감소, 대일 무역수지적자는 100% 감소하여 균형수준으로 변화됨.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총무역수지는 전통적인 방식이나 부가가치 기준이나 변화 없음

주: 1) 중간재 수입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이 창출한 부가가치 8억과 72억의 최종수요자는 중국이므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음

### 3. 결론 및 시사점

□ 우리나라가 무역을 통해 창출하는 부가가치 규모 면에서 중국의 역할은 전통적인 무역수지를 사용해 산정할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고, 미국과 일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증가

- 최근 발간된 OECD의 부가가치창출 기준 무역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중국, 일본,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를 부가가치창출을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대중 무역수지흑자 규모는 약 80% 줄어들고, 대일 무역수지는 균형수준에 근접, 그리고 대미 무역수지흑자폭은 증가

□ 이는 우리나라 수출의 글로벌 수입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신흥국 수출의 경우 국내창출부가치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

- 우리나라 수출품에 사용되는 중간재 중에서 해외창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40%임

○ 수출품에 사용되는 해외수입중간재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4위로 매우 높음

○ 수출용 해외수입중간재 수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입으로 계산되었지만 부가가치 창출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중간재를 생산한 나라의 최종소비국가에 대한 수출로 기록됨

○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종재수출에서 해외중간재수출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부가가치수출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음

- 글로벌 가치사슬상에서 국내창출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신흥국 수출 중 상당 부분은 선진국에 대한 부가가치 최종수출에 해당하는 반면에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 중에서 신흥국창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부분은 증가

○ 따라서 중국 등 신흥국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은 줄고 부가가치 수입은 증가

□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 안에서 부가가치 창출과정을 명확히 파악해야 함. 이와 더불어 중간재수입을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물류효율성 제고,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자유화가 필요함

- 글로벌 가치사슬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생산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외무역의 부가가치창출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임

○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에 이용되는 수출용 중간재의 수입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자동차부품, 전자 및 기계 업종과 같은 기술 및 부품소재 분야에서 대일 수입중간재를 이용해서 신흥국으로 최종재를 수출할 때 국내창출 부가가치 수출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역외선진국 수출을 위한 대중 가공무역 생산루트를 지금까지와는 달리 차별화하여,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갖는 고숙련 서비스요소 투입을 확대할 수는 전기·전자·자동차 분야에서 대미 고부가가치 최종재 수출을 확대해야 함

□ 특히, 시진핑 시대 중국의 최종재 소비증가에 대비하여 정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국내창출 부가가치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의 대중 비즈니스 기능을 확충하고 대중 수출구조 개선에 주력해야 함

-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대중무역의 국내창출부가가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무역총량의 증가로 중국수출특수를 누림

- 그러나 향후 시진핑 정부의 내수중심 성장정책에 따라 대중 가공무역이 정체되고 대신 중국현지 최종소비가 증가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저부가가치 수출구조로는 중국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목표로 내수 주도형 발전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산층이 활성화되면서 최종재 수요 증대 예상

○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시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대중 중간재수출 규모 하락 추정

- 따라서 대중 최종재수출에서 국내창출부가가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R&D, 디자인, 마케팅, 영업, 애프터서비스 부문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 가치사슬의 다운스트림에 해당하는 단순조립 및 부품 생산은 임금경쟁력이 높은 중국내륙지방으로 현지화 정도를 높이거나 동남아로 생산시설을 이동

- 향후에는 대중무역 규모 확대와 같은 양적 측면만 강조하지 말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호보완적으로 첨단정보기술과 지식기반 서비스를 대중 주력수출 상품에 융합하여 수출을 확대해야 함

○ 글로벌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창출과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대중 주력수출 산업인 전자전기제품과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부문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정보 기술 및 사업서비스와 상품의 융합수출 확대

□ 한편, FTA 체결 등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전통적인 수출입자료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기준 수출입자료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임

- 향후 미국과 EU의 TTIP 적극 추진, 일본 아베정부의 TPP 참여결정 및 중국의 대외개방 가속화 정책이 실현될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위치가 크게 변화할 것임

- 따라서 각종 무역자유화정책 수립 시 수출입 총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무역의 부가가치창출 규모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